

선진 기상기술로 아시아지역 기상위성 활용 능력 향상 지원

- 아시아지역 3개국 대상 '아시아지역 기상위성자료 활용 능력 향상 과정' 운영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네팔, 베트남, 요르단 3개국의 기상청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아시아지역 기상위성자료 활용 능력 향상 과정'을 10월 10일(화)부터 10월 19일(목)까지 10일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판교 소재)에서 운영한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번 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 연수사업 '아시아지역 기상위성자료 활용 능력 향상 과정('22~'24)' 2차년도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위성 시스템과 활용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기상위성자료 활용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현황 및 실행 계획 발표, 천리안위성 영상 및 산출물 이해, 천리안위성을 이용한 기후변화감시 기술, 집중호우 구름 분석 및 예보 활용 등이며, 국가기상센터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현장 견학을 포함하고 있다.

기상청은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인 총 96개국 1,400여 명에 이르며,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아시아지역 기상훈련기관(WMO RTC)**으로 지정되었다.

*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기상훈련기관(WMO RTC): WMO Regional Training Centre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 기술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기상예보 역량 향상과 위험 기상 조기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시아지역 기상위성자료 활용 능력 향상 과정 교육생 사진

담당 부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경립 (02-2181-0031)
		담당자	사무관	김은숙 (02-2181-0033)





| 입교식 기념사진 |



| 교육생 입교식 |